

논술 (인문계 B)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1)

경제학자들은 사용 가능한 생산요소들의 양이 주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상대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한다. 그들은 대개 관련 사실들이 상당 부분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체계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경제학이 변화의 가능성 혹은 예상이 어긋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체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특정 시기에 사실과 예상이 확정적이고 계산 가능한 형태로 주어지며 위험도 통계적으로 정확히 계산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그들은 확률의 계산을 통해 불확실성을 확실성과 동일한 지위, 즉 계산 가능한 지위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이는 벤담 철학에서 고통과 쾌락의 계산 혹은 이익과 불이익의 계산이 가능하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윤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행동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 이외에 대해서는 매우 불확실한 지식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 20년 후 구리 가격 혹은 이자율 수준, 새로운 발명품이 더 이상 쓸모없어질 전망, 장래 사회에서 각자의 경제적 지위 등은 불확실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산 가능한 확률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기반도 없다.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실천적 주체로서 어떠한 행동 또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거북한 사실을 무시한 채 마치 우리가 예상되는 이익들과 불이익들을 열거하고 여기에 각각의 결과들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벤담 식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개인적이든, 정치적이든, 혹은 경제적이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결정은 그 확률적 기댓값을 수학적으로 엄밀히 계산하기 힘들다. 그런 계산을 가능케 하는 기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는 계산 가능하지 않다.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결정의 순간과 결정의 결과가 나타나는 순간 사이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결정의 시점과 결과의 시점이 서로 떨어져 있을수록 환경은 더 불확실해진다. 결국 인간은 미래 전망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현상에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 예측이 매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복잡한 현상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일기예보의 경우 불과 며칠 후의 날씨조차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는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예측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이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경제학 모형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합리성 가정에 의하면, 인간은 매우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예상 등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행동이나 믿음이 일관적이다. 하지만 인간은 무한한 계산 능력도, 신과 같은 전지력(全知力)도 가지

고 있지 못하며, 인간의 결정은 종종 변덕이나 감정 혹은 우연의 영향을 받는다. 합리성 가정에 기초한 모형의 예측이 빗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인간은 실천적 주체로서 행동해야만 하며, 세상의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것은 행동하려는 인간의 내재적인 충동이다. 인간의 합리적 자아는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대안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데, 계산이 가능하다면 계산을 하겠지만, 종종 변덕이나 감정 혹은 우연에 의존한다. 그러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인간이 생각해 낸 중요한 기법 중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판단보다는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법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려는 개인들이 내리는 판단을 ‘관행적 판단’이라고 한다.

예컨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관행적 판단을 살펴보자.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는, 100매의 사진 가운데서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6인을 선택하되 그 선택이 투표자 대다수의 선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품이 수여되는 인기투표에 비유될 수 있다. 이 경우 각 투표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예쁜 얼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투표자들의 호감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얼굴을 골라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대다수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리는 판단이 관행적 판단의 예라 할 수 있다.

관행적 판단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미래에 관한 실용적 이론은 그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과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평온과 부동(不動), 확실과 안전의 관행은 느닷없이 무너지고, 새로운 두려움과 희망이 예고 없이 인간 행동을 지배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돌연 가치 평가의 새로운 관행적 기반이 강요될 수도 있다. 잘 작동하는 시장을 위해 마련된 멋진 기법들조차도 단번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애매하고 발작적인 두려움과, 모호하고 불합리한 희망은 진정되지 않은 상태로 표면 아래에 항상 놓여 있다.

(2)

오이디푸스: 어떤 부모 말인가?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낳았단 말인가?

테이레시아스: 오늘 이 날이 그대를 낳고 그대를 죽이게 될 것이오.

오이디푸스: 온통 수수께끼 같은 모를 소리만 하는구나!

테이레시아스: 수수께끼를 푸는 데는 그대가 가장 능한 사람이 아니던가요?

오이디푸스: 나의 위대함을 보여 주게 될 바로 그 일을 갖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테이레시아스: 하나 바로 그 행운이 그대를 파멸케 한 것이오.

오이디푸스: 나는 이 도시를 구했으니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

테이레시아스: 그렇다면 나는 가겠소. 애야, 나를 데려가 다오.

오이디푸스: 그가 그대를 데려가게 하라. 그대가 여기 있으면 방해만 되고 성가시니까. 가고 나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겠지.

테이레시아스: 가기는 가되 내가 온 까닭을 말하고 나서 가겠소. 그대의 얼굴썸은 두렵지 않소. 그대

는 나를 과멸케 할 수 없으니까요.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가 위협적인 말로 라이오스 왕의 살해를 규명하겠다고 공언하며 오래 전부터 찾고 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기 있소. 그는 이곳으로 이주해 온 이방인으로 통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토박이 테바이 사람이 밝혀질 것이요. 하나 그러한 행운을 그는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요. 보는 대신 눈이 멀고 부자 대신 거지가 되어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낮은 땅으로 길을 떠나게 될 테니 말이요. 그리고 그는 같이 살고 있는 그의 자식들의 형제이자 아버지이며, 그를 낳아준 여인의 아들이자 남편이며, 그의 아버지의 침대를 뺏은 자이자 그 아버지의 살해자임이 밝혀질 것이요. 자, 안으로 드시어 그 일에 관하여 잘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도 내 말이 잘못되었거든 그때부터는 내가 예언술에 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십시오.

(테이레시아스가 소년에게 인도되어 퇴장하고, 이어 오이디푸스는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

[중략]

이오카스테: 제발 부탁이니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왕이여! 무슨 일로 당신은 그토록 화내셨지요?

오이디푸스: 내 말하리다. 부인, 나는 누구보다 당신을 더 존중하니까요. 그건 크레온 때문이었소. 그가 내게 음모를 꾸뻐던 것이요.

이오카스테: 말씀해 주세요. 말다툼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오이디푸스: 그의 말인즉 내가 라이오스 왕의 살해자라는 것이요.

이오카스테: 그 자신이 알고서 한 말인가요 아니면 남에게서 듣고 한 말인가요?

오이디푸스: 그게 아니라 그는 사악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부추겼던 것이요. 그 자신은 비난받을 말을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았으니까요.

이오카스테: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일들로부터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세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고 잘 알아 두도록 하세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도 예언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거기에 대하여 내 당신에게 간단한 증거를 보여 드리겠어요. 일찍이 라이오스 왕에게 어떤 신탁이 내린 적이 있었지요. 아폴론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사제들로부터 말예요. 그 신탁이란, 운명이 그를 따라잡아 그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손에 그가 죽게 되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라이오스 왕은 적어도 소문대로라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세 길이 만나는 곳에서 어느 날 다른 나라의 도둑들에 의하여 살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태어난 지 사흘도 안 되어 라이오스 왕이 두 발목을 함께 묶은 뒤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 인적 없는 산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하여 아폴론께서는 아이가 아버지의 살해자가 되고 라이오스 왕은 아들의 손에 죽는다는, 그가 두려워하던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예언의 말씀들이 미리 정해 놓았던 거죠. 그러니 예언의 말씀들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신께서 필요해서 구하시는 것이라면 그분 자신이 쉬이 밝혀주실 테니까요.

오이디푸스: 부인, 방금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 내 영혼은 갈피를 못 잡고 내 마음은 뒤흔들리는구려.

이오카스테: 어떤 불안이 당신을 깜짝 놀라게 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이디푸스: 나는 당신에게 이런 말을 들은 것 같구려. 라이오스 왕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세 길 이 만나는 곳에서 살해되었다고 말ियो.

이오카스테: 그래요. 그런 말이 떠돌았고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어요.

오이디푸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대체 어디란 말ियो?

이오카스테: 그 나라는 포키스라고 불리며, 갈라진 두 길이 델포이와 다올리아로부터 바로 그곳으 로 통하고 있지요.

오이디푸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뒤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지요?

이오카스테: 당신이 이 땅의 통치권을 장악하기 직전에 그런 소식이 도시에 알려졌어요.

오이디푸스: 오오, 제우스신이여, 그대는 내게 무엇을 행하기로 결정하셨나이까?

이오카스테: 오이디푸스여, 어째서 그런 일이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죠?

오이디푸스: 아직은 내게 묻지 마시오. 라이오스 왕은 어떤 체격을 갖고 있었으며 남자로서 얼마만 큼 성숙했었는지 말해 보시오.

이오카스테: 키가 컸고 흰 머리가 갓 나기 시작했으며 외모는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이디푸스: 아아, 나아말로 불행하도다! 방금 나 자신을 무서운 저주 속에 내던져 놓고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니 말ियो!

이오카스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당신을 보고 있자니 떨려요.

오이디푸스: 그 예언자가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무서운 예감이 드는구려. 하나 한 가지만 더 말해 준다면 당신은 더 잘 보여 주게 될 것이요.

이오카스테: 정말 떨려요. 하지만 당신이 묻는 말에 아는 대로 대답하겠어요.

오이디푸스: 그가 길을 떠날 때 소수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소 아니면 왕답게 무장한 호위병들을 많이 거느리고 갔소?

이오카스테: 모두 다섯 명이었는데 그중 한 명은 전령(傳令)이었어요. 그리고 마차는 라이오스 왕 을 태운 것 한 대뿐이었어요.

오이디푸스: 아아, 이젠 너무나 분명하구나!

(3)

일반적으로 우리는 행동을 하기 위해 미래에 관해 예상한다. 미래에 관한 전형적인 합리적 예상 은 과학적 예측이다. 과학자들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세계에 관한 이해를 추구하며, 과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 사건에 대해 예측한다.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자들의 대답이 과학적 설명에 해당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자들의 대답은 과학적 예측에 해당한다. 과학적 예측이 가능한 것은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어떤 규칙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아무런 규칙성이 없다면, 과거나 현재의 사건에 의거하여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른바 ‘자연 법칙’ 혹은 ‘법칙’은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예측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칙성에 해당한다.

과학적 예측에 관해 매우 영향력 있는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의하면, 설명과 예측은 논리적으로 똑같은 특성을 지닌다. 설명과 예측은 모두, 설명되는 사건 혹은 예측되는 사건이 법칙에 의해 예상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보이는 논증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컨대 어떤 시점에서의 천체들의 위치와 운동량에 관한 선행조건들과 뉴턴역학의 법칙들로부터 그 이후의 시점 t 에서의 천체들의 위치를 추론하는 논증을 시점 s 에서 제시했다고 하자. 이 경우 s 가 t 보다 늦은 시점이면 설명에 해당하고, s 가 t 보다 이른 시점이면 예측에 해당한다. 설명적 혹은 예측적 논증의 전제들에 해당하는 선행조건들과 법칙들은 ‘설명항’이라 불리며, 이런 논증의 결론은 ‘피설명항’이라 불린다. 험펠의 ‘설명과 예측의 대칭성 논제’에 의하면, 과학적 설명과 예측은, 피설명항이 선행조건들과 법칙들로 이루어진 설명항에 의해 추론되는 논증이라는 점에서 논리적 구조가 동일하다. 다만 설명과 예측은 피설명항에 기술된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설명적 혹은 예측적 논증이 제시된 시점의 선후(先後)가 다르다는 점에서 실용적 차이를 지닐 뿐이다.

어떤 예측적 논증의 설명항에 포함된 법칙이 예외 없이 성립하는 보편 법칙이고 그 논증이 연역적으로 타당한 경우, 험펠은 이를 ‘연역 법칙적 모형’을 따른 예측이라 한다. 한편 어떤 예측적 논증의 설명항에 포함된 법칙이 통계적 혹은 확률적 법칙이고 그 논증이 귀납적 혹은 통계적으로 좋은 논증일 경우, 험펠은 이를 ‘귀납 통계적 모형’을 따른 예측이라 한다. ‘설명과 예측의 대칭성 논제’는 귀납 통계적 모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역 법칙적 모형과 귀납 통계적 모형은 개입된 법칙과 추론의 형식만 다를 뿐이고, 두 모형에 적용되는 설명과 예측의 관계는 같다. 예컨대 심리학자들이 순이가 아스피린을 먹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통계 법칙이며 순이는 심한 통증을 느꼈고 아스피린이 고통을 완화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귀납 통계적 모형을 따른 설명적 논증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에 심리학자들이 같은 통계 법칙과 같은 선행조건으로부터 순이가 곧 아스피린을 먹을 것이라고 추론한다면, 그들은 귀납 통계적 모형을 따른 예측적 논증을 제시한 것이다.

험펠은 그의 모형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적 설명과 예측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추가적인 예를 들자면, 경제학자들은 배추 가격이 급등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수요공급의 법칙과 같은 경제학의 법칙들과 배추 공급이 격감했다는 선행조건으로부터 배추 가격이 급등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또한 그들은 유사한 법칙들과 배추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선행조건으로부터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험펠에 의하면 과학적 예측은, 그것이 연역 법칙적 모형의 사례이든 귀납 통계적 모형의 사례이든 간에, 법칙에 필수적으로 의존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즉 미래에 관한 예상이 합리적 예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법칙으로 간주하는 규칙성에 의거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라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논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규칙성이 있으며 진정한 규칙성은 자연 법칙에 기인한다는 뿌리 깊은 믿음을 지니고 있다. 험펠의 모형을 따르면,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법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법칙의 후보로 간주될 수 있는 가설을 ‘법칙적 가설’이라 할 때, 합리적 예측은 잘 검증된 법칙적 가설에 의존하는 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대개 징조가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그 나라의 임금이 간언하는 자의 의견을 두루 듣지 않고 특정한 사람에게 쏠리거나, 공로에 근거하여 폭넓게 인재를 구하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등용하거나, 궁실과 누각이나 연못을 만드는 것만 좋아하고 수레나 옷이나 그릇과 노리개에만 관심을 기울여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왕실 귀족이나 대신들이 공로가 있는 사람에 비해 많은 봉록(俸祿)을 받으며 궁궐에서 지나친 사치를 하는데도 임금이 이를 규제하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는 망할 가능성이 높다.

진(晉)나라 사람 도서(屠黍)가 주(周)나라로 귀순하자, 주나라 임금 위공(威公)이 그를 접견하고 물었다. “천하의 여러 나라 가운데 어디가 먼저 망할 것 같소?” 도서가 대답했다. “진나라가 먼저 망할 것입니다.” 위공이 그 이유를 묻자 도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최근까지 진나라에 있었는데 바른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나라 임금에게 자연재해의 발생이 심상치 않다고 했지만, 그는 ‘그래서 어쩔다는 것이냐’라고 말했고,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도의에 맞지 않아 백성들이 모두 원망한다고 했지만, 그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말했으며, 이웃 나라가 복속하지 않고 어질고 선량한 이가 따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는 ‘그래서 무슨 말썽이 생기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인 까닭에 저는 진나라가 먼저 망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3년 뒤에 진나라는 과연 멸망했다.

위공이 다시 그를 접견하고 물었다. “어느 나라가 다음에 망하겠는가?” 도서가 대답했다. “중산국(中山國)이 다음에 망할 것입니다.” 위공이 그 이유를 묻자 도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늘이 백성을 낳으면서 구별을 두었습니다. 구별은 사람의 도리이고, 금수(禽獸)와 다른 까닭이며, 군신(君臣)과 상하층이 존립하는 기반입니다. 그런데 중산국의 풍속을 보면 낮이나 밤이나 가릴 것 없이 남녀가 서로 뒤섞여 쉴 새 없이 즐기고 애상적인 노래를 좋아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중산국의 임금은 이것이 나쁜 줄을 모르니 이는 망국의 조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산국이 다음 차례라 한 것입니다.” 2년 뒤에 중산국은 과연 멸망했다.

위공이 다시 그를 접견하고 “어느 나라가 다음에 망하겠는가?”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도서가 대답하지 않았다. 위공이 궁금하여 한사코 묻자 “임금께서 바로 그 다음입니다.”라고 했다. 위공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나라의 원로들을 예우했고 인재들을 등용했으며 가혹한 법률 39개 조항을 없앴다.

(5)

테바이를 통치하는 오이디푸스 왕은 종종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낸다. 왕은 그들에게 ‘수수께끼 1’이나 ‘수수께끼 2’를 내는데, 같은 사람에게 두 가지 수수께끼를 모두 내는 경우는 없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하여 백성들은 ‘방법 A’와 ‘방법 B’ 중 하나를 사용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단 한 번만 수수께끼를 받고, 수수께끼 풀기를 거부할 수 없다.

지난 5년간 왕에게서 수수께끼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통계치는 다음의 표들에 나타나 있다.

<표 1> 수수께끼를 받은 사람들 전체에 관한 통계

	답을 맞힌 사람들의 수	답을 못 맞힌 사람들의 수	정답률
방법 A 사용	700	300	0.7
방법 B 사용	600	400	0.6

<표 2> 수수께끼 1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통계

	답을 맞힌 사람들의 수	답을 못 맞힌 사람들의 수	정답률
방법 A 사용	600	150	0.8
방법 B 사용	225	25	0.9

<표 3> 수수께끼 2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통계

	답을 맞힌 사람들의 수	답을 못 맞힌 사람들의 수	정답률
방법 A 사용	100	150	0.4
방법 B 사용	375	375	0.5

I.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15점)

II. 제시문 (3)의 논지를 밝히고, 제시문 (1)과 제시문 (3)을 비교하시오. (30점)

III. 제시문 (3)에 근거하여 제시문 (2)의 테이레시아스와 제시문 (4)의 도서의 발언에 관해 논평하시오. (30점)

IV. 제시문 (5)와 관련하여 다음 문항에 모두 답하시오. (25점)

(가) 이오카스테는 지난 5년 중 어느 시점에 왕에게서 수수께끼 하나를 받았다. 그녀가 ‘방법 A’를 사용하여 답을 맞혔을 경우, 왕이 그녀에게 ‘수수께끼 1’과 ‘수수께끼 2’ 중 어느 것을 냈을 가능성이 더 높은지 근거를 제시하여 논하시오.

(나) 전령 1, 전령 2, 미디어는 모두 지난 5년 중 어느 시점에 왕에게서 ‘수수께끼 1’을 받았다. 왕은 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수께끼를 풀되, 왕의 백성인 전령 1과 전령 2는 ‘방법 A’를 사용하여 수수께끼를 풀고, 왕의 백성이 아닌 미디어는 ‘방법 A’, ‘방법 B’ 이외의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풀도록 하였다. 미디어는 수수께끼 풀기를 거부할 수 없다. 미디어가 ‘수수께끼 1’의 답을 맞힐 확률은 50%이다. 전령 1이 ‘수수께끼 1’의 답을 맞힐 가능성과 전령 1, 전령 2, 미디어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수수께끼 1’의 답을 맞힐 가능성을 비교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다) 크레온은 오이디푸스 왕에게서 수수께끼 하나를 받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표 1>에서는 ‘방법 A’의 정답률이 ‘방법 B’의 정답률보다 높지만 <표 2>와 <표 3>에서는 ‘방법 B’의 정답률이 ‘방법 A’의 정답률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표들에 나타난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가 답을 맞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표들에 나타난 역전 현상과 연관 지어 설명하시오.

※ 유의 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I 은 350~400자, II 는 600자(±50자), III 은 600자(±50자)가 되게 할 것.
IV는 자수에 제한 없이 쓰되 답안지의 테두리선을 벗어나지 말 것.